

# 일본 전자업계 동향

## 1. 일본 전자업계의 중간결산(9月) 내용

경기의 변동기에 일본 전자업계의 9월 중간 결산이 발표되었는데 기업수익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업종이 수익저하의 국면에 접어들어, 대형경기를 리드해 온 전자업계도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전부문 모두 매출 성장의 둔화, 이익의 대폭감소 등이 공통되는 것은 5년만의 일이다. 수익면에서는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의 고수준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자금사정과 경제현실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결산발표는 종합전자 3사와 일본전기가 전산업에 선행하여 모범을 보였다.

미발표된 대기업에서는 重電·FA기기의 옴론, 가전주력에서는 松下電器를 비롯하여 Sony, 파이오니아, OA·정보관련에서 Rich, 카시오, 계측기에서는 島津製作, 전자부품 부문에서는 TDK, Kyocera, 村田製作所 등이 있어 대세는 결정되었다.

전자업계의 업적은 전기부터 감익이 증가하지 시작하여 3월 결산법인 9월 중간결산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대폭감익이 눈에 띠고 있다.

이번 전자업계의 결산발표는 약 1/3이다. 업체수에서 보아서 전체를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종합전자 3사를 비롯하여 대기업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중간집계에서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9%증을 나타냈다. GNP 성장률을 약간 상승한 정도인데, 본래의 성장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내수는 감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보급된 이동체통신, 보급 피치가 상승된 에어콘에 대형화와 고기능화의 흐름에 편승하는 가정용전기, 전력회사의 설비투자에 의한 수변전 설비의 수주 등 긍정적인 부문도 많다.

영업이익의 29.2% 대폭감익은 중수효과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상승되었다. 반도체 시황의 침체, 퍼스컴과 코드리스 폰의 수요 정체 등 수익원이 경쟁격화로 가격저하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였다. 빼놓을 수 없는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영업력 강화의 투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경상이익은 29.2%의 감익, 영업외손의 특히 금융수익의 감소를 반영하였다. 이것은 주가의 장기침체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자금조달 시장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고금리의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동성의 감소, 자기자본 비율의 저하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간결산에 의하면 매출 증대 업체가 약 80%를 차지하였다. 경기의 변동기에도 성장력이 쇠퇴하지 않은 기업은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익면에서 轉機가 도래하였다. 영업이익에서는 증가한 업체가 21사에 반하여 감소한 업체가 39사를 상회하였다. 경상이익을 영업이익에 금융이익을 플러스한 것인데 증가업체 24사에 비하여 감소업체 26사로 나타났다. 전자업계를 살펴볼 경우, 종합전자 3사로 대표해도 좋다.

日立, 東芝, 三菱電機는 문자대로 종합 분야에 걸친 사업구성을 하여 기술의 최첨단 부문

## 일본 전자업계의 중간결산(9월)

(単位：百万円・伸張率、%)

분류	社數	매출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	전년 동기대비	경상이익	전년 동기대비	중간이익	전년 동기대비
總合電機	3	4,779,556	2.6	143,558	▲46.9	165,532	▲39.9	96,932	▲39.0
情報通信	3	2,913,455	7.1	110,534	▲23.3	89,132	▲27.4	58,684	▲22.0
重電・FA機器	10	785,468	9.5	56,769	▲8.8	61,433	▲4.5	32,974	▲5.3
家電主力	7	1,257,357	5.0	33,672	▲11.2	60,611	▲9.0	35,336	▲11.8
通信機器	13	568,133	4.8	22,366	▲14.7	27,619	▲12.6	15,781	1.8
OA・情報関連	5	308,847	5.0	13,376	▲8.2	15,897	▲6.2	7,257	▲4.4
計測機器	7	263,507	4.7	15,999	▲23.2	19,142	▲18.2	10,436	▲19.3
電子部品	7	494,206	6.6	20,584	▲13.4	21,182	▲5.1	10,429	1.4
空調・照明・電池他	5	393,655	8.0	24,982	3.9	23,654	3.3	12,999	11.6
合計	60	11,764,184	4.9	441,840	▲29.2	484,202	▲21.1	280,828	▲23.4

주 : 11월 5일 日發表分까지, ▲感

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업적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日本電機, 富士通을 첨가하면 컴퓨터, 통신기기의 톱기업인 만큼 대표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반도체에 있어서는 5社 집계의 전년동기대비는 매출에서 3.6%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에서 38.9%감소, 경상이익에서 35.2%감소를 나타냈다. 이 대폭감익이 전자업계의 업적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대기업 5社인 반도체의 부진에 의한다. 실리콘 사이클은 메모리의 세대교체기에 와서도 수요가 침체 상태에 빠졌다. 시황 혼미의 채산성악화가 감익요인이 되었다.

하반기도 반도체의 동향이 전자업계의 수익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 2. 일본 전자부품업계의 중국 진출 현황

말레이지아와 태국 등과 같은 급전개는 보이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일본전자부품 업계의 중국에서의 현지 생산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7월부터 미쓰미전기가 광동성 주해에서 트랜스, 폴리바리콘, 모터의 생산을 개시한 데 이어서 TDK도 '93년 4월부터 요영성 대련에서 켈러TV용 편향 요크코아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

다. 현재까지도 일본의 부품업계는 제조 플랜트의 납입과 광동성을 중심으로하는 위탁생산과 합작, 합병 등의 형태로 중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추진해 왔는데, 금후 미쓰미와 TDK와 같이 금액출자 형태의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전반적으로는 각종의 규제와 전력, 통신, 수송 등의 산업 하부구조 정비를 겨냥하면서,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중국에서의 생산체계를 정비해 나아갈 것이다.

중국에서 전자부품 산업발전에 일본업계는 1980년 전반부터 제조 플랜트의 납입, 기술협력(합작)의 형태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 후 외화취득을 위하여 연해지구에서의 위탁생산, 또한 합작 전액투자에 의한 진출이나 케이스도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는 경제특구, 기술개발구로의 진출이 눈에 띈다.

생산품목은 TV용 브라운관 등의 일부부품을 제외하고는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력한 전자부품의 중국에서의 생산이 활발화되고 있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특히 수동부품의 경우는 코일, 트랜스 등 권선기술용용의 생산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코일 수는 이미 중국 동남 Asia 가 일대공급기지화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미다電機, 상모무선제작소 등은 중국을 최대

의 생산기지로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동광도 현재 신공장동을 건설, 내년부터 중국에서의 코일수의 생산능력을 약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電源트랜스에 대해서도 미쓰미電機가 7월부터 현지에서의 생산을 개시하였다. 동경경 전기는 새로이 공장을 건설함과 함께 종업원도 2배로 증원하여 연내에도 전원트랜스의 위탁가공분의 능력을 약 2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노동집약, 저임금활용 등의 면에서 중국을 볼 때 생산예가 많은 것이 스위치, 소형모터, 전기 Head 등인데, 보급가격대의 AV(음향·

영상) 기기와 OA기기용의 품종이다. 예를 들면 소형모터의 최대기업인 Mabuchi Motor는 1986년부터 광동성에서 위탁생산을 개시, 현재는 월산 3,600만개(5공장 합계, 전년대비 20%신장)에 달하여 동사의 주력양산거점이 되고 있다. 또한 동사는 '88년에는 전액투자로 대련 Mabuchi의 조업을 개시, 월산 1,300만개(전년대비 40%신장)이다. 이것은 양방을 포함하면 동사 총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대체적으로 각사 모두 금년의 생산량은 전년에 비교하여 20~30%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관서계에서는 합작, 위탁의 형태로 현지생산

#### 일본 전자부품업계의 중국 진출 상황

社名	現地企業名	操業開始時期	중요한生産品目	生産状況, 製造拠点, 納入実績, 等
알프스전기				1984년부터 볼슴, 스위치, 퓨저, 자기 Head 등의 플랜트를 15개소에 납입
池尻電機	美芝億克利磁頭有限公司 四川省成都無線電七廠	88.3 82.4	자기헤드 "	작년 9월 제3공장 건설
오팩	大連奧克有限公司	89.12	모터용전기접, 제조, 조립	월간 100만개, 전년대비 35%증
K Y O C E R A	龍電子廠	87.12	카메라 서브 어셈블리	월 500만HK弗, 전년대비 25%증
相模無線製作所	日廣有限公司	87.7	고주파 코일, 필터	월간 2억 5천만원, 전년대비 20%증
神榮				'84~'90년, 필름콘덴서 제조 플랜트 33억 5천만엔
神明電機	上海神明電機有限公司	88.9	스위치	연간 2,500만개, 전년대비 30%증
SUMIDA電機	勝美達舊水坑電子廠	83.10	고주파 코일·필터, 트랜스 등	월간 3,000만개
東光	聯與電子及市吉鎮經濟發展公司	88.9	코일, PVC	—
T D K	미정	93.4	웨라이트 코어	월간 70만개를 예정
Foster電機	番舊水坑五金綜合總廠	90.3	스피커, 헤드폰, 마이크로 폰	스피커 월 1000만본, 헤드폰 Y50만대, 他
Hosiden	中星電機廠	88.5	코넥터, 드라이버 유니트, 코드 어셈블리, 모터, Solenoid	월 1,000만HK弗
松下電子工業	北京·松下彩色顯像管有限公司	89.7	컬러TV용 브라운관 (14, 19, 21인치)	월간 16만본
松下電子部品				튜너, 코일, 트랜스 등 18공장에 플랜트 납입
MA Buchi Motor	萬寶至馬達大連有限公司	88.2	소형모터	양공장합계 월간 약 5,000만개
Sumida電機	珠海三美電機有限公司	91.7	트랜스, PVC, 모터	월간 5억엔
五十嵐電機製作所	橫崗力硅電機廠	85.1	DC모터	월간 100만개, 전년의 20%증
S M K	浙江機電他3社	87.9	Jack 스위치類 외	월간 생산액 80만엔, 전년의 2.8배를 계획
三協精製製作所	慶門達真磁記錄有限公司	90.0	모터	월간 25만개, 전년대비 20%증 (플랜트의 납입도 포함)

을 하고 있는 메이커가 생산증강을 하고 있는 것 외는 플랜트 수출도 여전히 느린 속도로 행하여지고 있다.

松下電器, 松下電子工業이 북경시와 합작으로 만든 컬러TV용 브라운관 공장, 北京·松下彩色顯像管有限公司는 21인치를 중심으로 14인치, 19인치를 생산하고 있다. 벌써 月產 16만본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三洋電機와 蛇口의 합작, 장춘삼양전자는 LED Clock 뿐만 아니라, LED 디스플레이의 조립을 개시했다.

위탁생산에서는 Hosiden의 광동성 동완시의 위탁생산, 中星電器廠이 2 Shift 16시간 체제를 시행하여 月產 1,000만 HK\$가 예상된다. 콘넥

터, 드라이버 유니트, 모터, Solenoid의 생산, 코드 어셈블리 등이 증가하여 금년도는 전년대비 20% 증가의 생산이 예상된다.

삼양전기가 廣洲에서 위탁생산하고 있는 LED 램프, Clock은 각각 배증하여 월산 1,400만개, 100만개 규모가 예상된다.

플랜트는 松下電子部品이 작년9월에 전자튜너를 수출하였다. 플랜트 납입실적을 전자튜너 9공장, 可變抵抗器 4공장 코일·트랜스 3공장, 초음파 디레이 라인 프린트 기판 각1공장으로 하였다.

Sharp 완성품인 프랜트와 함께 이미 9공장에 부품 플랜트를 납입하고 있다.

### 대 중국·소련·동구 수출상황(1990년)

(단위: 억원, %)

	중국 전년대비	소련 전년대비	동국 전년대비	합계 전년대비
컬러TV	338	90.7	169	227.9
VTR	416	116.6	146	145.0
테이프레코더	31	151.9	8	101.2
가정용기기계	813	104.4	336	160.6
통신기기	156	74.8	17	155.6
컴퓨터	52	82.6	22	140.0
사무기기	39	91.0	22	99.3
의용전자기기	61	119.7	96	246.1
산업기기계	347	83.8	178	155.6
일반전자부품	98	60.9	66	143.8
능동부품	184	42.0	1	163.9
기기부품	232	113.6	16	114.3
전자부품계	514	64.0	83	168.9
합계	1,672	83.8	597	159.7
				478
				185.5
				2,749
				104.7

자료 : 너끼이 일렉트로닉스 '91. 9. 30